

## 전기계 및 회원사 동정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1일자로 산업부 장관 고시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해 공고했다.

이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동 시행령에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총 6개 기관을 지정했다. 단, 기관 내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총 1,500여 명이며, 해당 인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감사실)에 올 8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5회 국정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경제성장으로 기본적인 수요증가는 있으나, 작년 여름보다 덜 더운 날씨로 인해 냉방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약 7,900만k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최대전력공급은 8,450만 kW로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하더라도 운영예비력은 500만kW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예비력 부족을 이유로 최근 들어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지속돼 왔지만,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 원전 재가동 등으로 인해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겨울철에 단 1회도 전력수급경보가

원전 공공기관 부장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올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 상황은 없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첫 토론회 필두로

의견 수렴·공감대 형성 나서

발령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반복됐던 전력수급 위기는 올해를 기점으로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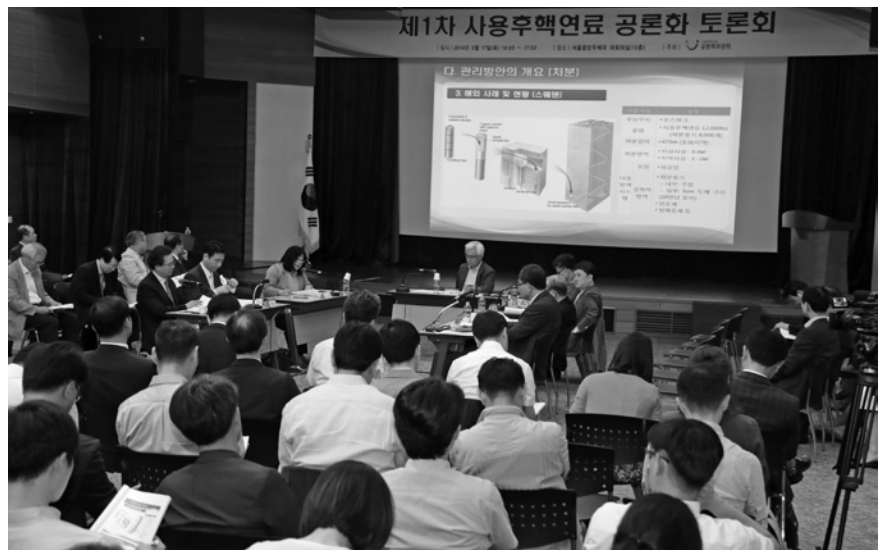
산업부는 일단 올 여름철 냉방 26℃ 온도 제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했다. 단,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 수급, 건물 냉방 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지난달 17일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특성과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개최한 첫 번째 공개 토론회로,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적합한 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과 관리방안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그 간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주요 쟁점과 논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일반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서 지난달 27일 대학생 토론회, 28일 타운홀미팅 등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향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 현안 사항 해결에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현)이 지난달 19~20일 양일간 부산에서 26개국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IEC/TC 82) 국제표준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양광 선도국인 미국, 독일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 태양광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효율 측정방법, 주변기기의 안정성 등과 관련한 주요 의제에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23년의 태양광 국제표준 역사 동안 제정된 55종의 국제표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최초로 태양광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IPV) 시스템’ 관련 표준인 ‘태양광 발전용 커튼월의 신뢰성 평가방법’ 등 2종의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우리 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달 12일 제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된 원전 부품·기기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기준, 과징금·과태료 상한 증액에 따른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방사능방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비상계획구역의 세부범위 설정 협의절차,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주기 단축(원전 지역별 1회/4년 → 1회/2년), 지자체별 연 1회 이상 주민보호훈련 실시 등이 포함됐다. 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제항공노선 탑승 승무원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을 20mSv에서 6mSv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 태양광 국제표준 2종

### 제안 추진

## 원안준, 원자력안전법

### 하위법령 개정 추진

'KEPCO Electric Fair'  
개최

한편 이날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에 대한 부문별 계획으로 '제1차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개년 계획(2014~2018)'을 의결했다.

한전은 국내 전력산업계 우수기술 교류와 사업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난달 12~13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본사 앞마당에서 '전력기술 사업화 & 동반성장 박람회(KEPCO Electric Fair 2014)'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130여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전력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최대 수요처인 대기업, UAE,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21개국 해외바이어 및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 70여명이 참석, 국내의 우수 전력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기술상담과 우수 전력기자재에 대한 수출 상담 및 계약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국내외 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범 전력산업분야의 새로운 소통의 자리로, 지난해 별도로 시행했던 전력기술거래장터 행사와 동반성장 박람회 행사를 한자리에서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한전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스 설치 비용 등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또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향후 한전의 해외사업 프로젝트 수주 및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사업 전담부서와 기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전력산업 설비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전은 지난달 11일 밀양 송전탑 미착수 5개소에 대한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지난해 10월 공사 재개 이후 8개월 만에 69개 전체 개소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밀양 송전탑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송전탑 부지에 주민들의 농성 움막 등으로 인해 착수를 미뤄왔던 부북면 129호 철탑 등 5개소에 대해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이 이뤄짐과 동시에 공사 착수에 들어갔다. 현재 한전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 30개 마을 가운데 2개 마을을 제외한 28개 마을과 공사시행에 합의한 상태다. 한전은 미합의 2개 마을인 상동면 고담마을과 모정마을과도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 반드시 합의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밀양지역 모든 철탑 공사현장이 순조로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송전탑과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 치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밀양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전기자동차를 업무용 소형차량으로 전격 도입한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전은 교체연한이 도래한 업무용 소형차의 교체를 통해 올해 30대, 2015~2016년에는 225대를 점진적으로 전기차로 도입할 예정이며, 2017년 이후에는 전면적인 전기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은 전기차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 4대를 포함해 총 24대를 전국에 추가로 설치하고, 2015년부터는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을 통해 3년간 약 1,000여대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충전인프라 확산에도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전개소로 확대

한전, 업무용 전기차  
전격 도입

동서발전, 울산 혁신도시로  
본사 이전 완료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장주옥)이 서울 삼성동에서 울산 혁신도시로 본사 이전을 완료하고 지난달 16일부터 울산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동서발전은 본사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옥에서 사용하던 책상, 의자, 회의탁자 등 주요 비품을 모두 재사용했다.

동서발전은 임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높여 수평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 발상을 자극하는 사무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스마트오피스(Smart Office)를 도입했다.

또한, 부서 및 개인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기존의 고정좌석제 대신 팀장 및 팀원의 유연좌석제를 운영한다. 이러한 스마트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해 데스크톱 가상화, 유무선 통합전화,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녹지면적 극대화를 통한 열섬효과 최소화, 주풍향과 조화를 이룬 배치 등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20% (238kWh/㎡, 년) 절감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사옥으로 지어졌다. 이외에도

지열 냉난방설비(997kW), 태양광 발전설비(70kW), 지하주차장 집광채광, 소형 풍력발전 가로등 등을 통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연간 약 1,004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남부발전, 공공기관 최초  
역량평가 전 간부 인사 반영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상호)이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 검증을 위해 시행한 역량평가를 공공기관 최초로 전 간부직원 인사에 도입한다. 남부발전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리더십 역량평가를 전 간부직원에게 시행하고, 개인별 역량평가 결과를 승진/보직 등에 연계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는 9.15 정전사태로 인해 대두된 공기업 상임이사 후보자의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201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전략적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위기대응능력, 이해관계조정, 의사소통 등 6가지 역량을 발표(Presentation), 집단토론(Group Discussion), 서류합기법(In Basket), 역할연기(Role Play) 등의 평가 Tool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모의상황에 대한 행동을 다수의 평가자가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시켜 '통과' 또는 '탈락' 여부를 판단한다.

남부발전은 오는 7월 초까지 승진 유자격 차장급 142명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시행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역량평가 심화과정을 개설해 역량기반의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또 자체적으로 역량평가자 과정을 개발하여 신입사원 채용 및 승진심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최평락)은 지난달 12일 강남구 대치동 본사 17층 컨퍼런스룸에서 해외동반진출협의회(이하 '해동진')의 해외진출성과를 점검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중부발전 박형구 발전안전본부장과 신흥기공 김선호 이사 등 해동진 회원사 대표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

중부발전은 해외사업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찌레본화력 발전소에서 약 330만 불의 국산기자재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금액은 지난해 84만 불에 비해 약 400%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해동진은 중부발전의 해외사업 핵심지역인 인도네시아에서만 2012년 8만 불, 2013년 150만 불, 2014년 5월까지 250만 불 등 408만 불의 수출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날 박형구 발전안전본부장은 “발전기자재의 경우 한번 설비에 적용하면 향후 교체가 필요할 때 동일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해동진 인도네시아 무역법인이 우리기업의 해외수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부발전 '해동진(海同進)',  
수출전진기지 역할 '본궤도'

남동발전, 여수화력 1호기  
Heavy Girder 상량식 거행

한국남동발전(주)(사장 허 엽)은 지난달 16일 여수화력 건설 현장에서 남동발전 및 협력회사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화력 1호기 건설사업 Heavy Girder 상량식’을 개최했다.

여수화력 1호기 건설사업은 37년 간 역할을 다하고 수명이 종료된 중유발전소를 시설용량 350MW급 고효율·친환경 유동층 석탄발전소로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남동발전은 여수화력 1호기가 완공되면 고신뢰성 발전소 운영을 통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게 됨은 물론, 친환경 설비 운영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함으로써 지역 대기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일러 압력부 설치 공사의 첫 단추라 할수 있는 Heavy Girder 상량은 보일러 본체(드럼, 튜브 등)를 지지하는 대형 철골보를 설치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한편, 현재 약 49%의 전체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여수화력 1호기는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한전기술, 신서천화력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수주

한국전력기술(주)(사장 박구원)이 지난달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신서천화력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리에 소재한 서천화력 1,2호기 인근 부지에 새로 건설되는 1,000MW급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오는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다.

한전기술은 부지조성 설계, 발전소 기본/상세 설계, 건설공사 발주 및 기자재 구매지원, 사업주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1,000MW급 석탄화력 발전소는 발전단가가 저렴하고 친환경 설비를 강화해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의 문제점을 해소했으며, 발전용량도 원전 수준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안정적인 전력수급 해결사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

한전기술은 500MW 및 800MW급의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1,000MW급 차세대형 석탄화력 설계기술을 개발했고, 2007년 당진화력 9,10호기 설계를 시작으로 후속 석탄화력 발전소의 핵심모델로 적용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지난달 13일 전력거래소 중앙 전력관제센터 회의실에서 동일 기종의 복합발전기를 시운전 중(드림파워, 경기도 동두천시)이거나 건설 중(DS파워, 경기도 오산시)인 발전회사



설비담당자와 이미 이들 기종을 상업운전 중인 울춘 및 군산 복합발전소 설비전문가를 초청해 ‘시운전 및 건설예정 발전회사 기술지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로 전력시장에 진입하는 민간 발전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 경험이나 기술적 기반이 적은 민간발전사를 지원하고, 발전기 운영능력을 높여 전력공급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사기종 발전사간 협의체 구성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설비고장 등 비상시 예비 자재를 공유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KPS(주)(사장 최외근)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전력 설비정비 전문기업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KPS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한전KPS 본사 12층 대회의실에서 최외근 사장을 비롯한 한전KPS 관계자와 백헌기 이사장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전KPS와 협력기업의 사고성 재해예방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구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협약체결에 따라 한전KPS는 54개 국내외 사업소 및 협력기업 근로자의 사고성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유기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마련해 경영에 반영하게 되며 공단은 이를 지원하게 된다.

전력거래소,  
시운전·건설 예정  
발전사 기술지원 회의 개최

전력설비정비 전문기업  
근로자 안전확보 나선다

한전KPS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해예방 효과의 확대는 물론 발전설비 정비업무의 안전 확보를 통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하이브리드석탄 개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친환경 고품위 석탄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기우)은 수분으로 채워져 있던 친수성의 석탄 기공을 사탕수수, 당밀, 글리세롤과 같은 친수성의 바이오매스로 대체한 ‘하이브리드석탄’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최영찬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브리드석탄은 수분이 차있던 저급탄의 수분을 제거하고, 그 기공 내로 바이오액(사탕수수, 당밀, 글리세롤 등)을 확산, 건조(또는 저온 탄화)시켜 결합한 two-in-one 연료다. 이 연료는 제조공정이 간단하며 적은 에너지로 저급탄을 친환경 고품위 연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로 실제 발전소에서 이용할 경우 막대한 에너지효율 증가 및 CO<sub>2</sub>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미분탄 화력발전소에서 500MW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저급탄을 기준으로 약 296ton/hr의 연료공급이 필요하나, 하이브리드석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 197ton/hr의 연료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보일러 효율 향상뿐 아니라 CO<sub>2</sub> 발생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LS전선, 잠비아에  
전력케이블 공급

LS전선(대표 구자은)은 최근 아프리카 남부의 잠비아 전력공사(ZESCO)에 500만 볼 규모의 가공(架空) 전력선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수도인 루사카(Lusaka) 인근 지역의 기존 노후 가공선을 교체해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며, LS전선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전선이 이번에 공급한 제품은 송전탑 등 설비는 그대로 두고 기존 전선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2배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증용량(增容量) 전선이다. 전세계적으로 4~5개 업체 정도만이 개발에 성공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LS전선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LS전선 윤재인 영업본부장(전무)은 “이번 프로젝트는 잠비아에서 증용량 전선을 도입하는 첫 사례로 잠비아 전력청은 물론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진행되면 추가 발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LS전선은 아프리카 지역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지중 전력선보다 가공 전력선, 그 중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전력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이 증용량 전선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대표 김경록)가 지난달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정전 위협 대비 현황과 효과적인 해법을 소개했다.

이날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정전대비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으로 UPS 설치 확대와 EPSS 테스트 솔루션 도입을 제안했다. EPSS (Emergency Power Supply Systems, 비상전원공급장치) 테스트 솔루션은 비상

전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자동화 해주는 솔루션으로, 비상전원의 각 부분별 점검 결과를 수치로 제공하고, 전력계통 각 부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육안에 의존하는 테스트 방식으로는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하기 어렵지만, EPSS 테스트 솔루션은 비상발전기 성능 측정 결과를 각종 데이터로 제공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 전력원을 비상발전기 등의 예비전력으로 전환해주는 자동 절체스위치(ATS, Automatic Transfer Switch)까지 동시에 점검 가능하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정전 대비 해법 제시